

진안지역 마을 숲에 관한 연구

박재철

우석대학교 조경학과

A Study on the Village Groves in Chinan-Gun Region, Korea

Park, Jae-Chul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Woosuk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remained real state of the village groves in human settlement circle. That was practiced in case of Chinan-Gun region which traditional elements had well been conserved. 33 village groves were found by site survey, reference and interview in Chinan-Gun region. 31 of 51 village groves were clarified as complementing village grove by classification of grove character. It was identified through survey that many were partially destructed by development and human overuse.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general, socio-behavioral characteristics, characteristics of forest state and vegetation structure of village groves in Chinan-Gun region.

Length, area, form, type, motive, location, relationship of those were analyzed to identify general characteristics. Facilities, human behavior and ownership of those were analyzed to identify socio-behavioral characteristics. Principal dominant species and appearing rate, height, width, density of those, species diversity of groves were analyzed to identify forest state and vegetation structure. Interrelation between each factor were analyzed and comparative review with previous studies was achieved.

I.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의 농촌은 1960,1970년대의 급격한 도시화와 산업화 속에서 특히 1970년대의 새마을 운동으로 마을 안길을 확장하고 농로를 내면서 전통적인 요소들이 많이 파괴되고 훼손

되었고 그 후로도 계속적으로 훼손이 이루어져 왔다. 앞으로 세계도시화 경향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며 이에 따라서 농촌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1980년대 이래 농촌지역계획은 계획단위를 농촌지역종합개발계획, 정주생활권계획이 군.면을 단위로해서 상당히 광역적인

계획을 수행하여 왔는데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시 농촌의 근본적인 토대인 "마을단위"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박,1990. 이,1996)고 본다. 인간정주의 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새마을운동이 일어나야 할 필요성(박,1990)이 점점 커지고 있다. 마을사람들의 모습살이 삶의 표출로 마을 주변에 조성되고 보호되어온 숲이 "마을숲"이다(김,1991) 이러한 숲들은 한국적 공원의 原形(김,1993a)으로서 최근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문화마을이나 생태마을 조성에 있어서 재조명될 필요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임 외(1995,1996)의 연구에서도 농촌 내 추가 필요시설에 대한 요구도 분석에서 공원 및 체육시설이 가장 많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마을공동 쉼터 조성이 모임장소가 됨으로서 마을에 대한 자긍심과 주민 유대감(공동체성)을 갖게 하는 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대 후반부터 정자목 내지는 보호수, 노거수에 관한 연구(임,1986; 심,1991; 신,1992; 김,1995; 박,1997)는 지속적으로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체목이 아닌 숲으로서의 "마을숲"에 관한 연구는 1938년의 조선총독부 임업시험장의 朝鮮의 林藪가 전국적인 연구의 시작으로 201개의 숲에 대한 조사 보고(장외,1995)가 있었고 1991년에 김에 의해서 새롭게 조명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김(1991)의 연구시도로 마을숲의 전국적인 차원의 마을숲 99개소를 조사하여 소개하였고 서 등(1993)은 전국적인 차원에서 유사한 개념이라고 볼 수 있는 전통생활환경보전림의 실태를 파악하고 보전대책을 모색하기 위하여 90여 개소를 조사 연구한 바 있다. 박 등(1995)은 기존의 김(1991)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마을숲 20개에 대한 심화연구를 수행한 바 있고 박(1997)은 김(1991), 서(1993)의 연구를 바탕으로 전북지역 해안숲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기존의 김(1991), 서(1993), 박(1995)등의 연구는 광역의 지역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많은 마을숲이 누락된 채 연구를 할 수밖에 없었고 실태 파악을 위해서는 좀 더 작은 규모의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이면서 정주생활권 단위인 군단위에서 어떠한 양태로 조성되었는지 얼마나 훼손되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적절한 규모이고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도 기초 자치행정단위인 군단위에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군단위를 연구 단위로 택하게 되었다. 진안군은 옛것을 잘 보존하고 있어서 전통공간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자는 주장(최,1997)까지 있었던 지

역이나 최근 용담댐건설로 면적으로 볼 때는 10분의 1의 면적이 수몰되고, 인구로 볼 때는 약 3분의 1(12610명)이 이주해야 될 운명에 처해 있는데 이(1996)는 16개소의 마을숲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어서 수몰되기 전에 전통적인 요소가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진안지역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진안군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게 되었다. 선행연구로서 박(1998)은 진안지역의 마을 비보숲에 대해서만 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더 나아가서 이 번 연구는 농촌정주생활권내의 전체적인 마을숲의 잔존 및 훼손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생태복원계획이나 마을계획, 공원녹지계획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II. 연구방법

1. 연구범위 및 내용

김(1991)의 연구에서 언급한 진안군에 해당되는 마을숲은 진안읍 원연장리의 숲 1개소이고 이(1996)는 진안문화에 위의 원연장리 숲 외에 15개소의 마을숲에 대하여 기술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16개소 외에 진안군 전체지역을 면밀히 현지조사하고 문헌조사, 주민과 군청, 문화원의 협조를 얻어서 추가하여 마을숲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그리하여 51개소의 마을숲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고 이 번 연구에서는 진안지역을 사례로 정주생활권내의 마을숲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숲의 형성배경 및 의미체제적인 고찰(김,1993a)보다는 정주생활권내의 마을숲의 실태 파악, 마을숲의 길이, 면적, 유형, 형태, 지형, 마을과의 관계, 조성동기 등의 일반적인 특성과 시설, 행태, 소유 등의 사회행태적인 특성, 임상 및 식생 구조 특성 등을 분석하여 고찰하고 기존의 연구와 비교고찰을 시행하였다.

2. 연구방법

현지조사와 문헌조사, 주민과 군청, 문화원의 협조를 통하여 마을숲이라고 할 수 있는 대상지를 51개 발견하였고 이에 대한 현지 답사를 1998년 5월부터 11월 10일까지 미진한 부분의 재조사를 포함하여 15차례에 걸쳐서 수행하였다. 현장조사시 실측을 통하여 마을숲의 길이, 면적, 지형, 형태, 유형, 시설, 마을과의 관계 등을 파악하였고 소유형태, 숲의

조성동기, 보호품격 지정여부, 내력 등은 주민과의 면담, 관련문헌조사, 보호수지(산림청,1984) 등을 통하여 파악하였다. 수종은 수목도감 및 수목학 도서들을 통하여 현지조사한 것을 재검색하고 임상은 측수법에 의하여 분류하였으며 교목층의 전 수종을 기록하고 출현종수, 총개체수, 교목 상층부 수종의 수고, 흉고직경, 근원직경, 흉고둘레, 수관폭, 입목 밀도 등을 金燾相식 측수기와 실측을 통하여 파악하고 대상지역의 주요수종의 특성을 전국 및 타도, 도내 다른 지역의 숲들과 비교하여 분석고찰하였다. 한편 숲내의 이용관련 시설과 인간활동의 내용을 기록하고 각 인자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진안지역 마을숲의 일반적 특성

馬耳山の 崇山信仰이 깃들어 있는 진안군지역은 전라북도의 보호수현황(보호수현황,1984. 박,1997)을 볼 때 도나무 8개 중에서 3개로서 37.5%를 차지하여 13개 시.군 중 가장 높은 지역으로 전통적인 요소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문헌조사와 현지 주민 면담, 문헌조사 및 문화원을 통하여 진안군 전체에서 51개의 마을숲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마을숲의 읍면별 분포를 보면 11개 읍.면 중 진안읍이 19개소로서 전체 51개소의 37.3%를 차지하여 표1과 같이 가장 많이 조성되고 보존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마이산과의 관련성이 높은 지구로서 추후 심층연구를 해야겠지만 마이산의 조망경관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다음으로는 정천면, 성수면이 6개소, 마령면 5개소, 동향면, 부귀면이 4개소, 백운면이 3개

미 조사시 별채되어 있었음)과 안천면은 각각 1개소씩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마을숲이 비보숲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 33개소(64.7%)로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마을이나 생태마을 조성시 에너지보존 및 절감의 차원에서, 영역성을 확보해 주는 차원에서 적용할 만한 시사성이 있으며 지역공원녹지체계 형성을 위한 선적인 연결요소로서 시사해 주는 바가 크다 할 수 있다. 숲길이를 보면 51개 숲의 평균길이는 846m로서 전라북도의 해안숲의 평균길이 217m에 비하면 40%도 채 못되었다.

가장 긴 숲은 45번 오암숲으로 210m였으며 가장 짧은 숲은 34번 주천 숲으로서 훼손되어 불과 21m로서 불과 4그루의 수목이 열식되어 있는 것에 불과하였고 27번 울현 숲은 22m였다. 이로 볼 때 가장 긴 숲과 가장 짧은 숲은 10배의 차이로서 편차가 컸다. 그러나 이는 훼손된 현재상태를 기준으로 조사한 것이므로 원래의 상태를 가늠하기에는 적절한 한계가 있으나 추후 훼손된 부분에 대한 실태는 추후 조사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면적을 보면 평균이 1,980㎡로서 약 600평이었다. 그 중 21번 하초 숲이 9,000㎡로서 가장 넓었으며 길이와 마찬가지로 34번 주천 숲이 105㎡로서 가장 작은 넓이었다. 지난 번 전북도 전체의 연구(1995)와 비교해 볼 때는 전북지역 마을숲의 평균이 1,860㎡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진안지역의 마을숲이 평균적으로 120㎡ 큰 것으로 나타나 전북평균과 거의 유사하였고 해안숲의 3,694㎡보다는 1,714㎡나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김(1991)의 분류 소형(0.1-0.5ha), 중형(0.6-1.5ha), 대형(1.6-3.0ha)으로 보면 소형에 해당하고 중형에 해당하는 것은 6개소, 11.8%였으며 대형인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지형을 보면 급경사지 5개소(9.8%), 완경사지 10개소(19.6%), 평탄지가 36개소(70.6%)로서 대부분이 평탄지 내지 완경사지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형태를 보면 마을숲은 선형 27개소, 선+장방형 5개소, 선+불규칙형 4개소, 선+사다리꼴 1개소, 선+동산형 1개소, 선+삼각형 1개소, 장방형 4개소, 삼각형 1개소, 원형 3개소, 불규칙형 3개소, 사다리꼴 1개소로서 선적인 형태가 39개소(76.5%)로서 약 3/4을 차지하였다. 이는 비보기능의 숲이 33개소로서 선형의 숲이 비보기능을 수행하기에 적합한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유형을 보면 동산형 7개소, 농지가장자리형 1개소를 제외하면 도로변+동산형 3개소, 도로변 5개소, 숲통과형 3개소, 도로+개천변 9개소, 도로+하천변 6개소, 개천+숲통과형 4개소, 하천+숲통과형 1개소, 개천변 6개소, 하천변 6

표1. 진안군 읍면별 마을숲 분포

진안읍	정천면	성수면	마령면	동향면	부귀면
19(37.3)	6(11.8)	6(11.8)	5(9.8)	4(7.8)	4(7.8)
백운면	주천면	상전면	안천면	용담면	계
3(5.9)	2(3.9)	1(2.0)	1(2.0)	0(0)	51(100)

소, 주천면 2개소, 상전면, 안천면이 1개소이고 용담면은 하나도 없었으므로 진안읍을 중심으로 한 남부지역에 많이 잔존하고 있었으며 과거 용담현이었던 용담면은 하나도 잔존하지 않았고 상전면(상전면의 금당숲은 수물예정으로 이

표2. 마을숲의 일반적 특성

소재지	숲길이(m)	면적(m ²)	지형	형태	유형	동기	마을과의 관계(입지)
1.진안읍 단양리 원단양	41	720	완경사지	선+장방형	동산형	액막이	입구
2.진안읍 단양리 원단양(B)	44	720.4	급경사지	선형	하천변	풍치	옆
3.진안읍 반월리 금마곡	24	129.6	급경사지	삼각형	동산형	마을쉼터	옆
4.진안읍 반월리 원반월	113	6,554	평단지	선+불규칙형	숯통과형	비보	입구
5.진안읍 반월리 고암(산 동)	30	300	평단지	불규칙형	도로변+하천변	비보	입구
6.진안읍 반월리 산재	10	100	완경사지	원형	도로변+동산형	마을쉼터	입구
7.진안읍 가림리 은천(A)	135	7,425	평단지	선+불규칙형	도로변	액막이(화계)	앞
8.진안읍 가림리 은천(B)	50	800	평단지	선형	도로변+개천변	수구막이	입구
9.진안읍 가림리 탄곡	170	4,510	평단지	선+사다리꼴	개천변	수구막이	옆
10.진안읍 가림리 원가림	35	1,050	평단지	선+장방형	개천변	수구막이	옆
11.진안읍 가림리 사인동	100	1,760	급경사지	선형	도로변	액막이	옆
12.진안읍 구룡리 예리(A)	72	720	평단지	선+불규칙형	도로+개천변	수구막이	옆
13.진안읍 구룡리 예리(B)	29	522	완경사지	원형	동산형	마을쉼터	뒤
14.진안읍 구룡리 석곡	35	500.5	평단지	선형	도로변	마을쉼터	입구
15.진안읍 구룡리 임곡	73	1,547	완경사지+평단지	선+동산형	숯통과형	액막이	옆
16.진안읍 물곡리 준평	32	320	평단지	선형	하천변	수구막이	옆
17.진안읍 순하리	94	282	급경사지	선형	하천변	풍치	없음
18.진안읍 운산리 구운	40	532	평단지	선+장방형	도로변+개천변	마을쉼터	옆
19.진안읍 연경리 원연장	96	8,000	평단지	선+장방형	하천변	수구막이	옆
20.정천면 원평리 상초	65	1,040	평단지	불규칙형	도로변+하천변	마을쉼터	입구
21.정천면 원평리 하초	180	9,000	평단지	선+불규칙형	개천+숯통과형	수구막이	옆
22.정천면 원평리 원원평	191	600	평단지	상반형	도로변+개천변	마을쉼터	옆
23.정천면 원평리 원원평(유원지)	120	1,644	평단지	선형	도로변+하천변	풍치	없음
24.정천면 봉황리 은촌(하천변)	170	1,020	평단지	선형	도로변+하천변	풍치	없음
25.정천면 원평리 오동	187	4,488	평단지	선+삼각형	하천변	수구막이	옆
26.상천면 구룡리 근달	27	513	평단지	불규칙형	동산형	액막이(화계)	옆
27.안천면 백화리 읍현	22	264	완경사지	선+장방형	도로변	수구막이	옆
28.동향면 성산리 하향(A)	45	1,125	완경사지	장방형	도로변+동산형	제사	옆
29.동향면 성산리 하향(B)	35	362.3	평단지	장방형	도로변+개천변	비보	옆
30.동향면 성산리 상향	144	4,032	급경사지	선형	도로변+개천변	수구막이(화계)	옆
31.동향면 자산리 하노	64	1,024	평단지	선형	도로변+개천변	비보	입구
32.주천면 구암동	52	1,456	평단지	장방형	도로변+개천변	마을쉼터	옆
33.주천면 주암리(외동암)	60	1,800	평단지	사다리꼴	개천변	풍치	옆
34.백운면 운교리 주천	21	105	평단지	선형	농지가장자리변	비보	옆
35.백운면 노촌리 원노촌	116	1,508	완경사지	선형	도로변+동산형	비보	옆
36.백운면 동창리 변덕	28	247.2	평단지	선형	도로변	표지	옆
37.마령면 강정리 월운	63	987	평단지	선형	개천변	수구막이	입구
38.마령면 강정리 강정	28	195.3	평단지	선형	도로변+하천변	마을쉼터	옆
39.마령면 덕천리 판치	155	3,410	평단지	선형	개천변+숯통과형	수구막이	옆
40.마령면 계서리 계남	140	1,120	급경사지	선형	하천변	수구막이	옆
41.마령면 동촌리 원동촌	53	1,537	평단지	선형	개천변	마을쉼터	옆
42.성수면 좌포리 봉촌	50	1,800	평단지	선형	개천+숯통과형	수구막이	옆
43.성수면 외궁리 원외궁	44	553	평단지	선형	도로변+개천변	수구막이	입구
44.성수면 외궁리 상외궁	40	1,400	완경사지	원형	동산형	비보	옆
45.성수면 중길리오암(A)	210	5,250	평단지	선형	개천변+숯통과형	수구막이	옆
46.성수면 중길리 오암(B)	35	700	완경사지	선형	동산형	풍수	뒤
47.성수면 도봉리 지동	170	5,100	완경사지	선형	동산형	조립	옆
48.부귀면 거석리 상거석	150	3,000	평단지	선형	숯통과형	수구막이	옆
49.부귀면 거석리 금마	140	3,500	평단지	선형	하천변+숯통과형	수구막이	옆
50.부귀면 거석리 하거석	136	1,224	평단지	선형	개천변	수구막이	옆
51.부귀면 두남리 원두남	150	4,500	평단지	선형	하천변+도로변	수구막이	입구
평균	84.6	1,980	-	-	-	-	-

개소로서 84.3%가 도로변, 개천변 내지는 하천변에 입지하여 접근성과 친수성이 높은 곳에 입지하는 경향을 보였다. 조성동기를 보면 33개소(64.7%)가 수구막이, 액막이 등의 비보를 위해서 조성되었고 10개소(19.6%)가 마을쉼터를 조

성하기 위한 것으로 그 다음이었고 5개소가 풍치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고 그 밖에는 제사標識, 조림을 위해서 1개소씩 조성되어 있었다. 이를 통해서 마을의 裨補기능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다음으로 休養的기능(마을

쉼터 기능), 風致的 기능의 順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선협연구(장외, 1996)의 전통도시숲의 기능이 保安的 기능(水害防備, 風害防備, 潮害防備, 飛砂防止 등)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風致的 기능인 것과 비교하면 진안지역은 裨補 기능이 월등히 강한 지역임을 알 수 있고 근래에 와서 휴양적 기능이 숲내에 여러 가지 휴식 및 운동을 위한 시설이 설치되면서 중요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마을과의 관계를 보면 7개소의 숲이 마을옆에 조성되었고 마을입구에 조성된 숲이 11개소, 마을과의 관계가 없이 독립적으로 조성된 숲이 3개소로서 이를 제외하면 30개소(58.8%)가 마을 앞에 조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背山臨水의 우리나라 전통적인 定住패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상관관계를 보면 마을 쉼터(휴양적 기능)의 숲들은 형태가 선형이라기 보다는 삼각형, 원형, 장방형, 불규칙형 등이 많았고 동산형, 도로변+개천변의 유형이 대부분이었고 숲길 이도 52.7m로서 평균 84.7m에 비하여 62.5%에 불과하였고 면적도 평균이 661.3㎡로서 전체 평균 1,980㎡의 1/3에 불과하였다.

2. 사회, 행태적인 특성 분석

비보기능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진 마이산 塔寺로 유명한 진안지역에는 마을의 비보기능을 도와주기 위하여 돌탑(돌무더기), 선돌 등과 함께 조성된 것이 많이 남아 있었는데 돌탑은 11개소(21.6%)에 잔존해 있었는데 1기가 있는 곳에서 4기(11번 하초 숲)가 남아 있는 등 다양하였고 선돌은 8개소(15.7%)에서 잔존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6개소에서는 돌탑과 선돌이 따로 놓여져 있었고 돌탑 위에 선돌이 세워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 중에서 10번 원연장리 숲의 돌탑은 무너져서 돌이 널려져 있었으며 11번 하초 숲의 경우도 2기는 마을길을 다시 내면서 새로 조성하였으나 4기 중 옛날 길의 입구에 있는 2기는 무너진 채로 놓여져 있었고 기복적인 요소인 돌거북(Hong, 1997)과 함께 놓여져 있었다. 선돌은 1기만 세우는 경우와 11번 하초 숲의 경우와 같이 1기씩 길 양변에 2기를 쌍으로 세우는 경우가 있었다. 12번 금당 숲은 기록(이, 1996)에 의하면 五塔三石이 존재(전, 1997)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98년 조사시에는 수물예정지역으로서 수목을 벌채하면서 제거하여 흔적을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돌탑들이 진안지역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마이산의 大地塔이 비보의 기능을 가

진 것으로 최근의 연구결과(최, 1997) 밝혀진 것을 볼 때 천지탑의 영향이 진안지역 마을의 곳곳에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사료되고 이러한 영향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돌탑 혹은 돌무더기가 많이 존재하는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최근에는 무너진 돌탑을 다시 쌓는다든지 새로 돌탑을 만드는 마을이 늘어나는 것을 볼 때 한 때 전통문화적인 것이 미신이라고 해서 배척되었던 것이 긍정적인 의식으로 변화하면서 새롭게 복원 혹은 창조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공통시설로서는 휴식시설, 운동시설, 편의시설, 묘지관련시설 등이 있었으며 최근 농촌 마을이 정주성을 상실하면서 방치됨으로서 일부 숲에서는 농사용 작업기계나 재료의 야적 및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다. 사각정자 내지 팔각정자는 17개소(33.3%)에서 설치되어 있었고 이 중 팔각정 2개소를 제외하고는 15개소에서 사각정자로 나타나 사각정자가 마을숲에서는 정자의 양식으로는 대부분으로 볼 수 있다. 행태면에서 보면 과거에는 제사의식이 행해졌으나 최근에는 거의 행해지지 않고 있고 휴식이나 운동, 야영, 농사용 작업, 표고재배 등이 주로 행해지고 있었다. 이 중에서도 특히 표고재배는 11개소(21.6%)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는 숲의 다른 이용을 저해하고 하층식생의 생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었다. 또한 이용이 활성화되지 않은 숲에 있어서는 고장난 농기계를 방치하는 경우가 있어서 본래의 의미를 상실하고 숲이 폐기공간화되어 나머지는 버려진 공간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관리와 규제가 요청된다. 소유면에서 보면 공유지 12개소(23.5%)를 제외하면 39개소(76.5%)가 마을소유로서 마을소유가 3/4 이상이고 이 중 7개 마을은 집성촌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마을숲이 마을 공동체적인 공간이었으며 공동체적인 노력으로 만들어지고 관리되어왔다는 것이 주민의 인터뷰와 자료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다.(진안문화, 1996, 1997) 진안지역에서 밝혀진 것은 集姓村을 이루고 있는 마을일수록 마을숲의 규모가 크고 잘 보전되어 있었다는 점인데 이는 集姓村이 各姓村보다 마을 공동체성이 더 잘 유지되어왔던 때문으로 사료된다. 아쉽게도 용담댐건설로 인하여 여의곡 주민들이 愛林少年團을 조직하여 나무를 심고 가꾸었던 26번 정천면 모정리 여의곡숲은 조사시에 이미 훼손되어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고 12번 금당 소나무숲은 벌채되어 그루터기만 남아 있었고 25번 정천면 월평리 오동 소나무숲은 현재는 남아 있으나 수몰될 운명에 처해 있다. 상관관계를 보면 마을쉼터(휴양적 기능) 기능을 하는 숲은 휴식, 운동

표3. 마을숲의 사회 행태적 특성

소재지	시설 ()는 갯수	행태	소유
1.진안읍 단양리 원단양	체력단련장,평석92), 벤취(6),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평상	휴식, 운동, 모임	군유
2.진안읍 단양리 원단양 (B)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자연석(다수), 옹벽	휴식, 물놀이	군유
3.진안읍 반월리 금마곡	석축단, 평석	휴식	마을
4.진안읍 반월리 원반월	앉을 수 있는 평석(17), 주차장, 농사용 기계, 중앙원로	휴식, 야영, 표고재배, 농사용작업	마을
5.진안읍 반월리 고암(산수봉)	앉을 바위,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휴식,물놀이, 야영	마을
6.진안읍 반월리 산재	사각정자	휴식	마을
7.진안읍 가림리 은천(A)	벤취(9), 조각물(4), 쓰레기소각장, 이동식화장실(2), 체력단련장, 비석, 사각정자, 테니스장, 농구장, 평석, 등탁자, 계단	휴식, 운동, 농사용작업, 모임, 레크레이션	마을(천안전씨, 동천 최씨)
8.진안읍 가림리 은천(B)	옹벽	휴식	마을
9.진안읍 가림리 단곡	농사용 설비	휴식, 표고재배	마을(인동 장씨)
10.진안읍 가림리 원가림	돌담	휴식, 농사용작업	마을
11.진안읍 가림리 사인동	옹벽	휴식	마을
12.진안읍 구룡리 예리(A)	돌담, 농사용기계, 농사용 재료 야적	휴식, 표고재배	마을
13.진안읍 구룡리 예리(B)	팔각정, 옹벽, 계단,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휴식	마을
14.진안읍 구룡리 석곡	팔각정, 옹벽, 계단,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 단	휴식	마을
15.진안읍 구룡리 암곡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옹벽, 저온보관소	휴식, 표고재배	마을
16.진안읍 물곡리 종평	돌담, 농기계	제사, 물놀이	군유
17.진안읍 군하리	평상, 옹벽	휴식	군유
18.진안읍 운산리 구운	사각정자, 평상, 그네,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돌제단, 옹벽, 농기계	휴식, 제사	마을
19.진안읍 연장리 원연장리	정자, 쓰레기소각장, 중앙원로, 체력단련장, 어린이놀이터, 벤취(7),우사, 돈사	휴식, 운동, 놀이, 표고재배, 농사용작업, 업연초진조, 축산업	군유
20.정천면 월평리 상초	사각정자,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옹벽	휴식	마을
21.정천면 월평리 하초	돌담(4), 농구대, 콘테이너 박스(2), 선동(4), 단열주택, 돌거북, 중앙원로	휴식, 제사, 표고재배	마을
22.정천면 월평리 원월평	사각정자,마유회관, 화장실	휴식	마을
23.정천면 월평리 원월평(유원지)	평상, 벤취, 공기전화박스, 음식점, 음수전	휴식, 야영, 물놀이	군유
24.정천면 봉황리 음촌	방범초소	물놀이	군유
25.정천면 월평리 오동	사각정자, 화장실	휴식, 물놀이, 야영, 모임	군유
26.상진면 구룡리 금당	선동, 농사용기계	휴식	마을
27.안천면 백화리 율현	돌담, 선동,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옹벽,	휴식	마을
28.동향면 성산리 하향(A)	제각(충렬사), 비석	표고재배, 제사	마을(창녕 성씨)
29.동향면 성산리 하향(B)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휴식	마을(창녕 성씨)
30.동향면 성산리 상향	돌담,선동, 비석, 옹벽, 농사용재료 야적	제사, 농사용작업	마을(반남 박씨)
31.동향면 자산리 하노	돌담, 선동,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 단, 옹벽	휴식	마을
32.주천면 구암동	사각정자, 화장실, 비석, 체력단련장, 조각물, 벤취, 철봉, 농구대, 수도	휴식, 운동, 물놀이, 마을행사	마을
33.주천면 주암리(와룡암)	사각정자(와룡암), 꽃밭, 관리소, 계단, 옹벽	휴식, 물놀이, 학습	마을
34.백운면 혼교리 주천	농사용재료 야적	농사용작업	마을
35.백운면 노촌리 원노촌	자연석,묘, 비석, 농사용 재료 야적, 옹벽	휴식, 표고재배, 성묘	마을(거창 신씨)
36.백운면 동창리 번덕	벤취, 농사용기계	휴식	마을
37.마령면 강정리 월운	체력단련장, 사각정자, 마을꽃밭, 평상, 쓰레기소각장, 농사용기계, 농사용재료	휴식, 운동, 농사용작업	마을
38.마령면 강정리 강정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휴식, 물놀이, 농사용작업	군유
39.마령면 덕천리 관치	돌담, 선동, 마을꽃밭, 농사용기계, 농사용 재료 야적	휴식, 표고재배, 농사용작업	마을
40.마령면 계서리 계남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옹벽, 소로	휴식, 물놀이, 야영, 농사용작업, 업연초진조	군유
41.마령면 동촌리 원동촌	사각정자, 석장승, 돌제단, 농기계, 농사용 재료, 리아카, 체력단련장	휴식, 운동, 농사용작업	마을
42.성수면 좌포리 봉촌	농사용재료 야적	휴식, 농사용작업	마을
43.성수면 외궁리 원외궁	사각정자, 제사용 큰 바위	제사, 휴식	마을
44.성수면 외궁리 상외궁	없음	농사용작업	마을
45.성수면 중길리 오암(A)	선동, 비석,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농사용재료 야적	휴식, 업연초진조, 농사용작업	마을
46.성수면 중길리 오암(B)	비닐하우스, 묘, 비석	휴식, 농사용작업	마을
47.성수면 도봉리 지동	돌무더기,사각정자, 양봉, 천막, 비석, 묘, 비닐하우스, 농사용재료	휴식, 농사용작업, 업연초진조	중중(연안 이씨)
48.부귀면 거석리 상거석	농사용재료 야적	휴식, 표고재배	마을
49.부귀면 거석리 금마	이동식화장실, 옹벽	휴식, 야영, 물놀이, 모임	군유
50.부귀면 거석리 하거석	돌담,사각정자,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휴식, 농사용작업	군유
51.부귀면 두남리 원두남	돌담, 선동, 사각정자, 앉을 수 있는 콘크리트단, 옹벽	휴식, 물놀이, 야영, 모임, 표고재배	마을

등 이용강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하층식생의 빈곤이 심하였고 반면에 비보기능의 숲들은 이용강도는 비교적 적으나 농사용 작업, 표고재배, 쓰레기 野積 등으로 숲의 훼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관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임상 및 식생구조 분석

임상은 측수법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활엽수림이 43개소(84.3%), 침엽수림이 5개소(9.8%), 혼효림 3개소(5.9%)로

서 전북도의 활엽수림 55%, 침엽수림 31%에 비하여 활엽수림의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반면 침엽수림의 비율이 매우 낮게 나타났다. 전북도의 해안숲은 침엽수림이 83.3%로서 활엽수림인 진안 마을숲과는 심한 대조를 이루었다. 특기한 사항은 침엽수림이 5개소 밖에 안 되는데 이 중 2개소 25번 오동숲과 26번 금당숲이 용담댐건설로 수몰됨으로서 최소한 가치가 있는 침엽수림이 사라지는 형편이다.

전국 보호수의 수종별 현황을 보면 전체 보호수 중 느티나무의 비율이 57.3%이고 전북도의 경우는 70.2%인데 비하여 진안군 지역은 83.9%로서 괴목인 느티나무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출현빈도를 보면 보호수뿐만 아니라 마을숲의 경우에도 느티나무가 41개소(80.4%)로서 전라북도의 50%에 비하여 상당히 높은 출현빈도를 보였다. 우점종의 경우를 보면 전북도의 경우 느티나무가 우점종인 숲이 15%인데 비하여 진안 마을숲의 경우는 32개소(62.7%)로서 느티나무가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비율이 4배 이상 높았다. 전북도의 경우에는 소나무가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숲이 45%로 가장 높았는데 비하여 진안 마을숲의 경우에는 느티나무가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숲이 62.7%로서 가장 높은 것이 전북도 전체와 진안군의 상당히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국 보호수나 전북도의 보호수를 보면 느티나무 다음으로 팽나무의 비중이 높은 데(전북환경운동연합, 1998) 진안의 마을숲의 경우에는 개서어나무가 24개소에서 출현하여 47.1%의 출현빈도를 보였고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곳이 6개소(11.8%)로서 전북도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개서어나무의 비중이 다른 수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것이 전북도의 특성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되었다. 전북도와 비교해 볼 때 개서어나무의 출현빈도는 전북도의 45%와 거의 비슷하였으나 우점종인 경우는 전북도의 25%에 비하여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우점종을 보면 느티나무 32개소(62.7%), 개서어나무 6개소(11.8%), 소나무 5개소(9.8%), 상수리나무 3개소(5.9%), 왕버들, 밤나무, 갈참나무 각각 1개소(3.7%)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출현빈도를 보면 느티나무 41개소(80.4%), 개서어나무 24개소(47.1%), 팽나무 14개소(27.5%), 소나무 12개소(23.5%), 상수리나무 10개소(1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우점종에서 특이한 점은 전북도의 경우에는 상수리나무가 우점하는 숲이 한 개소도 없었는데 비하여 진안 마을숲의 경우에는 상수리나무가 우점하는 숲이 3개소 나타난 것과 전북도의 경우에는 소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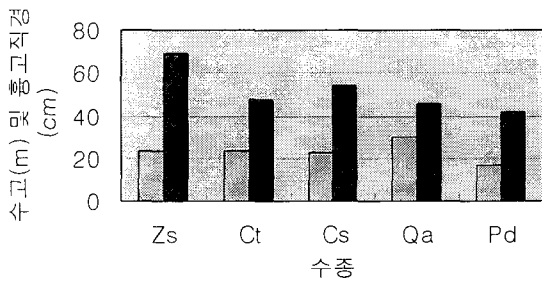
무가 우점종으로 나타나는 숲이 45%로 가장 높은 데 비하여 진안 마을숲의 경우에는 5개소로 9.8%밖에 되지 않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출현빈도에서는 팽나무와 참나무류(상수리나무, 떡갈나무, 갈참나무, 굴참나무)의 출현빈도가 각각 전북도의 15%보다 팽나무는 12.5%, 참나무류는 10.5% 높게 출현한 것이 비교되는 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교목 상층부 수종의 다양성을 보면 11번 하초 숲이 9종으로 가장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고 13개소(25.5%)의 숲이 1종으로 1/4정도가 가장 단순한 숲으로 나타났다. 평균 출현 종수를 보면 2.8종으로서 전북도의 4.6종 보다 다양성이 아주 낮게 나타났다. 한 숲 당 평균 개체수는 32.8개였고 개체수가 가장 많은 숲은 11번 하초 숲으로 206개였으며 개체수가 가장 작은 숲은 29번 하향(B) 숲으로 2개에 불과하여 편차가 컸다.

수고를 보면 평균수고가 22.5m로서 전북도의 평균 20m보다 수직생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수고가 높은 숲은 느티나무로 구성된 24번 음촌(하천변) 숲으로 평균수고가 36m였고 가장 낮은 숲은 23번 원월평(유원지) 숲, 38번 강정 숲으로 평균수고가 13m였다. 주요수종별 평균수고를 보면 상수리나무가 30.2m, 개서어나무 23.6m, 느티나무 23.2m, 팽나무 22.4m, 소나무 16.8m 등이었다. 진안 마을숲의 경우에는 상수리나무가 가장 수직생장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5대 수종 중에서는 소나무가 가장 수직생장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흉고직경을 보면 교목상층부의 평균흉고직경이 61.5cm로서 전북도의 42.9cm보다 43.4%정도 더 부피성장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토양의 영향도 있겠지만 느티나무나 개서어나무가 주 우점종으로서 부피성장이 잘 이루어지는 수종위주로 구성된 요인도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14번 석곡 숲이 평균흉고직경이 150cm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12번 예리(A) 숲이 31.3cm로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나 5배정도의 편차를 보였다. 주요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69cm, 팽나무 54.1cm, 개서어나무 47.6cm, 상수리나무 45.3cm, 소나무 42cm의 순으로서 다음 도1과 같이 상수리나무는 수고에 비하여 흉고직경이 작은 것을 알 수 있고 느티나무는 상대적으로 수고에 비하여 흉고직경이 큰 것을 알 수 있고 소나무는 수고와 흉고직경 모두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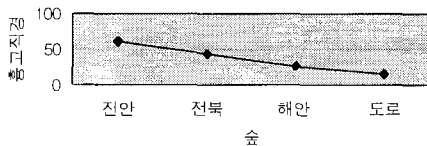
각 숲의 巨樹의 흉고둘레는 14번 석곡 숲의 느티나무가 540cm로 가장 큰 것이었다. 각 숲의 巨樹의 평균 흉고둘레는 213.4cm에 달하였다. 각 숲의 巨樹의 수관폭을 보면 29

번 하향(B) 숲의 느티나무가 34m로 가장 컸고 평균 수관폭은 13.4m에 달하여 충분한 녹음을 조성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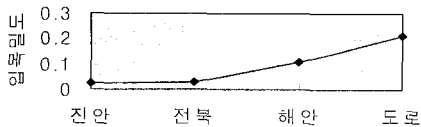
교목상층부의 입목밀도를 보면 평균이 0.021주/m²로서 전북도의 평균 0.028주/m²에 비하면 약간 낮았으며 해안숲의 0.11/m²에 비하여는 밀도가 19.1%에 불과한 수준이었고 도로주변림 0.21주/m²에 비하여는 10%수준에 불과하였다. 이를 통하여 도2, 도3,와같이 입목밀도와 흉고직경간에는 반비례 관계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공원 조성시 흉고직경에 따른 식재 적정밀도의 산정에 시사성을 주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도1. 수종의 수고와 흉고직경의 상관관계



도2. 조사지별 흉고직경



도3. 조사지별 입목밀도

하층식생을 보면 평균종수가 44종으로서 다른지역의 마을숲에 비하여 하층식생이 비교적 많은 편에 속했으며 25번 오동 숲은 하천변에 위치한 관계로 수분이 양호하고 인간의 간섭이 미약해서 27종에 이르는 하층식생이 출현하여

다양성이 가장 높은 숲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 개천변의 10번 원가림 숲과 9번 탄곡 숲, 30번 판치 숲, 하천 및 개천변의 51번 원두남 숲이 하층식생의 다양성이 높은 숲으로 나타나 개천변이나 하천변의 수분이 많고 인간의 간섭이 적은 숲이 하층식생이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천변이나 하천변의 비보기능을 가진 숲이 多層構造로서 생태적 건강성을 가지고 있고 이용에 대한 壓力도 잘 견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水分維持와 생태적인 健康성과의 밀접한 관련을 확인할 수 있었다.

IV. 요약 및 결론

진안지역을 사례로 定住生活圈 내의 마을숲의 실태를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정주생활권 차원의 마을숲의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양호한 마을숲들이 51개소나 잔존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조사 결과 잔존된 숲들도 많은 훼손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때 이 보다 훨씬 많은 수의 마을숲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었다. 그 동안 전국적인 차원내지 도단위의 차원에서 연구함으로써 마을숲의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을 보완하여 마을숲의 畵數조사를 정주생활권 내에서 수행함으로써 마을숲의 존재의 실태를 규명하는 데 기여하였다.

2. 진안지역에서는 51개의 잔존 숲 중에서 33개소(64.7%)가 마을의 비보기능을 가진 숲으로 확인되어 비보기능이 마을숲 조성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친 것을 알 수 있었다.

3. 진안 마을숲의 읍면별 분포를 보면 마이산을 중심으로한 진안읍이 19개소(37.3%)로 월등히 많은 분포를 보였고 정천,성수,마령,동향, 부귀, 백운의 과거 진안현지역에 많이 잔존하고 있고 과거 용담현 지역인 용담,주천,안천,상전에는 거의 잔존하지 않고 있었다. 상전에는 소나무 숲 1개소(금당)가 잔존하고 있었지만 안타깝게도 용담댐건설로 수몰에 정으로 이미 벌채되어 있었고 정천의 모정 여의곡숲은 흔적조차 없어져 버렸고 정천 월평리의 오동 소나무숲은 현재까지는 잔존해 있으나 용담댐 담수와 함께 사라질 운명에 처해 있었다.

4. 숲의 평균길이는 84.6m로 마을숲의 성격상 비보의 기능이 64.7%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대부분 선형을 이루고 있는데 부분적으로 새마을사업이라든가 도로를 개설하거나

개간을 하면서 훼손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원래 숲은 현재보다 더 길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숲의 복원을 통한 생태적인 기능의 회복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5. 숲의 평균면적은 1,980㎡로서 이는 김(1991)의 분류에 의하면 소형(0.1-0.5ha)에 해당하는 규모였으며 전북도의 평균인 3,078㎡의 2/3정도가 채 못되었다.

6. 조성동기(기능)는 주로 마을 비보(비보기능), 마을쉼터 조성(휴양적 기능), 풍치조성(풍치적 기능) 등의 순이었다.

7. 마을과의 관계를 보면 7개소의 숲이 마을옆에 조성되고 3개소가 마을과 관계없이 조성된 것을 제외하면 41개소, 80.4%가 마을 앞과 입구에 조성되어 있었다. 이는 背山臨水の 전통적인 定住패턴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8. 진안 마을숲의 경우 비보의 기능을 도와주기 위하여 돌담, 선돌 등과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최근의 농촌

마을의 정주성의 상실로 농작업기계의 방치와 표고재배 등의 생산공간화 함으로서 나머지 공간, 버려진 공간으로 화할 우려가 있고 하층식생의 빈곤을 초래하여 次代更新이 이루어질 수 없는 숲이 될 가능성이 있었다.

9. 교목상층부의 출현 빈도가 높은 종은 느티나무, 개서어나무, 팽나무, 소나무, 상수리나무 순이었는데 전북도 전체에 비하여 특이한 점은 느티나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고 상수리나무가 우점종인 숲이 3개소나 출현하는 점과 소나무가 우점종인 숲이 5개소밖에 안된다는 점이였다.

10. 진안 마을숲의 평균 출현종수는 28종, 평균 개체수는 32.8주, 평균수고는 22.5m, 평균흉고직경은 61.5cm, 평균입목밀도는 0.021주/㎡로 계산되어 수고, 평균흉고직경은 전북도의 평균보다 높고 출현종수, 평균개체수, 평균입목밀도는 전북도의 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參 考 文 獻

- 김승환 외(1995) 부산시 노거수의 공간구성과 주민의 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임시총회 및 학술발표논문집. pp.22-23.
- 김유일 외(1995) 도시 및 농촌주거자의 농촌경관 선호도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2) : 93-103.
- 김학범(1991) 한국의 마을원림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학범 외(1993a) 마을원림의 경관의미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0(4) : 22-24.
- 김학범, 장동수(1994) 마을숲. 서울: 열화당
- 박서호(1990) 농촌개발의 새로운 전망.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 : 140-143.
- 박서호(1994) 대전권내 자연마을의 변화와 적응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5 : 81.
- 박재철 외(1995) 전북지역 마을원림의 특성에 관한 연구. 우석대 논문집 제17집 : 237-255.
- 박재철(1997) 전북지역 도로주변림과 마을원림의 비교고찰. 한국농촌계획학회지 3(1) : 33-40.
- 박재철(1997) 전북 농어촌지역 해수욕장 배후림에 관한 연구. 조경연구논총 제2집 : 1-8.
- 박재철(1997) 전북 농어촌지역 마을숲과 해안숲의 비교고찰. 한국조경학회지 23(2) : 133-142.
- 박재철(1997) 농촌 정주생활권내의 마을 비보숲의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3(3) :
- 산림청, 임업연구원(1995) 한국의 전통생활환경보전림.
- 산림청(1984) 보호수지 : 305-331.
- 심우경(1991) 한국 보호수의 상징적 가치와 보호대책. 한국정원학회지 9 : 91-104.
- 이상훈(1996) 진안지역 마을숲 이야기. 진안문화 제 5호 : 179-199.
- 임승빈 외(1996) 농촌마을 공동쉼터 현황 및 이용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추계 학술논문발표회 초록집. pp.21-22.
- 장동수, 김학범, 김정태(1995) 전통 도시숲의 실용적 기능에 관한 연구(1).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30(4) : 237-250
- 전북환경운동연합(1998) 전라북도내 노거수(보호수) 실태조사와 보호관리 대책 방안 연구. 전북환경운동연합 보고서 :15-20.
- 전형무(1997) 그리운 고향산천, 진안: 진안문화원
- 최규영((1997) 마이산 천지담은 누가 쌓았는가?. 진안문화 제6호 :
- 최창조(1997) 다시 보는 풍수 전북 진안 용담 무릉. 디지털조선일보 12월 5일자.
- Sunki, Hong(1997) Landscape and Meaning. Doctor Scientiarum Thesis. Agricultural University of Norway : 67-70,93-105.